

용천수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박 원 배
(책임연구원)

용천수는 지하수가 지중으로부터 지표, 하천, 바다 등에서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현상으로 습지나 하천의 귀중한 수원인 동시에 주민에게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에서 용천수의 의미는 물 이용 역사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이전 물 이용은 대체적으로 용천수나 봉천수·하천수를 길어다 이용하였으며, 또한 물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특색있는 문화와 생활양식을 갖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파악된 용천수로로는 911개소 정도였으나 수량고갈·위치멸실·주변 훼손 등으로 200개소가 사라져 지금은 711개소이다. 이에 대한 이용현황을 보면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용천수가 28개소이고, 생활용 218개소, 농업 및 생활용 122개소이며, 이용하지 않는 곳은 339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711개소 중 372개소는 이용되고 있으나 나머지 339개소는 전혀 이용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개발행위 등 토지 변화에 의해 용천수가 소실되고 용수량의 감소, 수질 악화 등 용천수를 둘러싼 환경은 점점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 그리고 생활용수로서 이용되고 있는 용천수가 적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에는 도민의 생활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이다. 용천수 보전을 위한 사고를 정리하고 보호와 회복을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의 물 순환으로서 용천수의 보전이다. 지표에 내린 우수는 지하로 침투해서 지하수가 되기도 하고 지표를 흘러 최종적으로 바다로 유입되고 다시 바닷물은 증발해서 다시 비가 되

어 지표에 내린다. 자연계에서는 이러한 물 순환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데 용천수에 대해서도 이러한 물 순환의 일환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다.

용천수를 물 순환 시점에서 보면 하천의 수원이 주체는 용천수가 되고 있다. 제주도의 상시하천은 용천수가 물을 공급하고 있다. 용천수의 보전은 이들 하천의 평시 흐르고 있는 유량을 유지 확보하고 가까운 곳에 살아있는 생물의 생식환경을 보전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

둘째, 지역의 자연 상징으로서 용수보전이다. 용천수는 수로나 습지, 하천 등과 함께 풍부한 자연을 육성하고 도민에게 운택한 장소를 형성하는 등 지역의 자연 상징으로 의미를 갖고 있다. 용천수 그 자체만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주변의 자연환경과 함께 갈 필요가 있다. 특히, 자연이 적어진 시가지에 있어서는 용천수와 그 주변의 자연환경은 물과 녹지의 중요한 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용천수나 수로 등은 사람들 생활 속에 넓게 사용할 수 있고 동시에 수변의 친숙한 생물의 서식지로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용수보전은 생물의 종 다양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셋째, 용수를 지키기 위한 역할분담과 제휴이다. 용천수에 대한 문제를 그 지역 주민만이 지켜야 할 것은 아니다.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각 시·군 간에 협력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분담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전제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용천수는 하천의 수원이 되는 등 그 보전은 자연의 건전한 물 순환의 회복에 기여

하고 생물의 귀중한 생식공간을 형성하고 있고 또한 주변 환경에 주는 영향을 광역적으로 생각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은 용천수의 보호와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첫째, 용천수 지점 및 주변에 대한 환경보전이 시급하다. 요즘 지역개발과 더불어 용천수 일대가 많이 훼손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자의 세심한 배려와 개발 사업에 대한 규제도 요구되지만 그 일대의 주민들과 관계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계기관에서는 주민들이 용수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용천수에 대한 보호 방안이 요구된다. 특히, 자연보호조례를 용천수에도 적용 시켜야만 하며 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중요한 용천수의 보전·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수원이나 역사적 가치, 수량, 수질, 그 유래, 경관 등을 고려해서 「제주 명수」나 「역사의 샘」 등의 명칭으로 용수를 선정하여 제주 명수가 관광자원화로서 역할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예로 최근 일본에서는 명수 순례가 붐이 일고 있으며 각 지역마다 명수를 선정하여 맛있는 물을 홍보하고 있으며, 명수 순례 관광 상품이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용수량의 보전은 건전한 물 순환의 확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용천수 및 지하수 보전을 위해 우수침투시설 설치 시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함양지역의 확대를 위해 삼림이나 농지, 시가지의 녹지의 보전 등에 의한 빗물이 지하로 침투 가능한 지역을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지하수나 용천수의 근원은 빗물이기 때문에 강우량이 많은 중산간 상부 지역에서의 개발은 함양지역을 감소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고지대의 개발에 있어서는 함양지역 감소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하수·용천수 등의 수량을 보전하기 위해 빗물을 지하로 침투시키는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기초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수량적으로 풍부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미래를 위해 우수침투시설 설치의 추진하기 위해 주민에게 용수 보전의 중요성, 우수침투시설의 유효성을 홍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수질보전은 아무리 수량이 풍부하더라도 오염된다면 어느 용도에도 쓸모없는 물이 될 것이다. 용천수는 지하수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질산성질소, 휘발성유기화합물, 대장균 등 오염 위험성이 있다. 제주도 용천수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시군이 연대하여 청소나 보전활동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주민과 시군이 공동으로 용천수를 조사하고 관찰이나 측정 등에 대한 조언을 하고 용수의 상황과약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업자 등에 의한 비료 사용의 적정화를 호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재 용천수의 청소작업은 지역 주민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청소작업의 빈도차를 보면, 지역주민들이 이용 빈도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많은 용천수일수록 용천수 주변 환경이 청결하다. 따라서 이용객이 적은 용천수에 대해서는 지역주민과 시군 또는 환경단체 등과 연대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실시함으로써 주민의 자연과 만남의 장소로서, 생물들의 생식장소로서 용천수를 청정한 상태로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